

## 물고기 살 수 없는 저수지 ‘급증’...노후화·수질악화 심화

전국 저수지 75% ‘50년’ 초과...저수지 노후화 ‘전남’ 83.4%로 가장 심각

수질 4등급 이상 저수지 21.6%...전년 대비 6.9%p 증가, 대구·인천·전남 순

전국 저수지 노후화와 수질악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한국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저수지 3421곳 중 2572곳(75.2%)이 축조한지 50년을 초과한 노후 저수지로 분석됐다.

특히 전남의 경우 전체 저수지 1056곳 중 50년을 넘어서 저수지 비율이 83.4%(881곳)를 차지할 만큼 저수지 노후화 문제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수지 노후화뿐 아니라 저수지 수질도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421곳에 대한 올 상반기 수질조사 결과 3371곳 중 4(IV)등급을 초과한 저수지는 21.6%(728곳)로 전년 대비 6.9%p 증가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저수지 수질악화가 심화됐다는 의미다.

상대적으로 대구(30.0%), 인천(29.4%), 전남(29.0%), 경남(27.5%), 광주(22.9%) 저수지 수

질등급이 전국 평균에 비해 4등급 초과 저수지 비율이 높았다.

신정훈 의원은 “많은 예산 투자에도 불구하고 저수지 노후화와 수질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노후 저수지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개선을 통해 최소 기준 설정과 성능 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수질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핑크빛 가을 물든 고분군 속 국립나주박물관

고분군 사이에 들어선 국립나주박물관 일대가 몽환적 분위기를 선사하는 핑크몰리(Pink Muhly Grass)에 둘러싸여 분홍 물결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 “최고의 소를 찾아라” 장흥군, 으뜸한우 경진대회 성황

회진 김경호 농가, 2년 연속 수상

전라남도 최고의 우량한우 선별을 위한 ‘제38회 전라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가 27일 장흥축협 가족시장에서 열렸다.

장흥군과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가 주최·주관한 이번 경진대회는 한우농가의 개량을 촉진하고 고급육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 후원은 전라남도과 한우자조금관리위

원회 등이 참여했다.

전라남도 내 22개 시군에서 우량한우 81두를 출품한 가운데 5개 부문(암송아지, 미경산우, 경산우)에서 시상축을 선별했다.

경진대회 결과 완도군 박지훈 농가의 출품축이 으뜸한우 챔피언에 등극했다.

장흥군은 우량한우 부문별(암송아지, 미경산우, 경산우) 4두와 고급육(거세우) 부문에 출품해, 회진면 김경호 농가가 지난해에 이어 번식우 부문 장려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수상의 영

광을 안았다.

장흥군은 전국 제일의 명품한우의 고장으로 장흥축협과 함께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를 육성하고 있다.

김경호 농가 또한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참여농가로 이번 수상 성적을 통해 장흥한우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장흥군 축산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수상 성적은 한우등록 및 계획교배, 체계적인 개체기록관리 등 한우 개량에 대한 노력의 결과”라며, “고급육 생산과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 5·18행불자 암매장 문제 전담할 가칭 ‘범정부 합동수사본부’ 꾸린다

광주시·경찰·검찰·법무부·국과수 합동 협의체 구성

42년 만에 처음으로 옛 광주교도소 암매장지에서 5·18 행방불명자의 유전자 확인된 가운데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27일 5·18 행불자 암매장 문제를 전담할 ‘(가칭)범정부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위와 국과수의 최종 유전자 정보 감식 결과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나올 예정이다.

조사위에 따르면 조사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지방검찰청, 광주시, 광주북부경찰서, 법무부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가칭)범정부 합동수사본부’가 오는 29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합동수사본부는 옛 광주교도소 암매장지에서 유전자 확인된 전남 화순군 출신 행방불명자 A씨의 행적과 사망 경위 등을 비롯해 추가 행방불명자 찾기를 위한 전방위 조사에 나선다.

조사위와 국과수는 현재 진행 중인 옛 광주교도소 출토 유골 262구에 대한 유전자 정보(DNA) 감식에 집중한다.

현재 조사위는 민간 기업을 통해 SNP(단일 염기 다형성) 기법으로 행방불명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이 기법은 대상자의 방계까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과수는 STR(짧은 반복 서열) 기법으

로 직계 가족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조사위는 조만간 국과수로부터 A씨에 대한 STR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대조작업을 벌인 뒤 신원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11월 말~12월 초에 최종 감식 결과를 공표할 방침이다.

광주시와 경찰, 검찰은 조사를 통해 신원이 파악된 행방불명자들의 행적 조회와 사망 경위 파악에 나선다.

‘80년 당시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문서와 5·18 이후 신근부의 문건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행방불명자의 고향, 소식이 끊겨졌을 가능성도 시점, 입원·체포 기록 등도 두루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A씨가 발견된 곳이 옛 광주교도소인 만큼 이 곳으로 들어온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된 유골 262구가 합장된 과정을 살피고 있다.

‘80년 당시 교도소로 이송된 중상자들이 의료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과거 교도관의 진술에 따라 이들이 광주 모처에서 부상을 당한 뒤 이곳으로 옮겨졌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조사위 관계자는 “각 기관들과 추가 행방불명자 발견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해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 제24회 서편제 보성 소리 축제

## 보성

## 소리 축제

전국 판소리·고수 경연대회

2022. 9. 30. - 10. 2. 일  
 보성군문화예술회관·보성 판소리 성지

접수기간 2022.8.16. 화 ~ 9.23. 목 18:00 까지 도착분

접수방법 본인 및 대리신청, 방문·우편·e-mail·FAX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신분증 지참(대회 당일)  
\* 판소리 명창부 : 원창 또는 2시간 이상 발표 경력 증명 자료 제출

참가비 없음

접수처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보성문화원)  
 ·우편 및 방문 (59453)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281-11 보성문화원  
 ·e-mail bs2629@hanmail.net ·FAX (061)853-2629

접수안내 (061)850-5892, 852-2629 / 서편제보성소리축제 홈페이지  
 http://www.boseong.go.kr/tour/festival/sopyonje

주최 보성군 주관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라남도 전남도의회 전라남도교육청 보성문화원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무관중 경연대회로 전환될 수 있음.

‘판소리, 유네스코 무형유산등록 19주년 기념 전국 판소리·고수 경연대회 명창부 ‘대통령상’

녹차수도보성